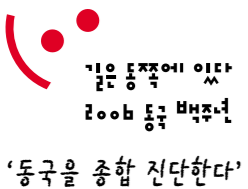


종합기획 2. 교육분야 ③ 교수처우

교수 급여 체계 개선 필요

교수 65.7% "급여 불만족"



'동국을 종합 진단한다'

우리학교는 올해로 건학 100주년을 1년 여 앞두고 있다. 이에 본 사에서는 명문사학으로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학교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크게 4개 분야로 구분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보는 '동국을 종합 진단한다' 장기기획을 준비했다.

- 1. 학교 정책·행정분야 2. 교육분야 3. 연구분야 4. 환경분야
① 교육과정 ② 교수임용 ③ 교수처우

지난해 12월 3일부터 서울 캠퍼스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수회가 실시한 '교수복지 문제와 교육·연구 환경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교수의 약 65.7%가 현재 급여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직급별 급여 만족도를 살펴보면 정교수 46.3%, 부교수 76.4%, 조교수 82.2%, 전임강사 72.4%가 불만족, 혹은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해 직급이 낮을수록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단순히 교수들의 급여에 대한 불만족의 차이를 넘어 부족한 급여로 인한 외부 강의 경험의 확대, 급여 문제로 인한 이직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현재 상황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4.5%의 임금인상이 실시되기는 했지만, 타 대학들이 평균 5% 인상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현재의 낮은 급여 체계가 쉽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의 경우 학교 측에서 평가(성과)에 따른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들의 불만은 더욱 확대 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세종대의 경우는 교수 임금 부분에서 지난해 20%의 파격적인 인상에 이어 올해 22.8%의 인상을 실시해 전국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을 나타냈다. 이어서 성공회대와 아주대에도 각각 총액대비 10%의 인상안을 결정했다. 이 같은 인상안은 해당 대학의 평소 낮은 수준의 급여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교수 처우를 높이고자 하는 학교 측의 노력이 반영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 예산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임금 동결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앞으로 임금, 보수 체계의 개편 등에 따라 현재의 교수들의 처우 등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bob83@dongguk.edu

제도개정 둘러싸고 학교·교수회 불협화음

교원업적평가 개정 중요요인 ... 의사소통 창구 마련 시급

지난달 확정된 교원업적평가를 포함한 규정 개정을 두고 학교와 교수회(회장=염준근·통계학)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다. 교수회는 교원업적평가 개정, 정년보장교원 호봉 승급 제한 등의 제도를 규정개정행위로 보고 학교가 구성원 의사를 무시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제도개정 과정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었으며 이미 교무위원회에서 통과돼 규정으로 제정된 사항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엔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업적평가 및 정년보장교원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은 업적평가 기준을 대학 교육협의회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기준에 맞춰 본교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본교 교원의 50%가 넘는 정년보장교원의 연구업적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교원업적평가, 정년보장교원 호봉 승급 제한 등의 규정개정과 관련해 교수회는 "교육의 한 주체인 교수들의 여론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제도 개정이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고 "대의평가 결과 교육여건·재정 부문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과 발전기금의 지속적인 감소, 재단전임금의 열악한 현황 등의 책임이 학교와 법인에게 있다"고 말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학교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논문실적 이 전무한 전임교원이 180여명이나 된다"며 교수들의 업적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정년보장교원 또한 호봉 승급 제한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사실, 올해 들어 고려대학교, 포항공대, 아주대, 부산대 등 전국 주요 대학들이 교수 연구업적평가기준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정년보장교원 호봉 승급기준도 하나같이 높아졌다. 특히 성균관대 서정돈 총장은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연구업적평가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2회 연속 호봉 승급심사에서

떨어지면 임용취소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수업적평가기 이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것은 학교와 교수회간 의사소통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건학 100주년을 1년여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한 쪽의 입장에 치우친 감정적 대응보다는 각 구성원이 학교의 어려운 현실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동국, 북극에 서다 ... 지난 5월 1일 오전 4시 45분에 박영석(체고 91출) 동문이 북극점을 등정함으로써 세계 최초 산악 그랜드슬램 달성에 성공했다. 사진은 동국대학교기를 들고 북극점에 선 네명의 원정대원. 왼쪽부터 정찬일 대원, 홍성택 대원, 박영석 대장, 오희준 대원. 사진제공=대외협력처

2005년도 연구업적우수교원 선정

2005년도 연구업적우수교원으로서 △동국학술대상=김철호(한의학) 교수 △동국학술상=박명관(영어영문학) 교수, 강태원(물리학) 교수가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연구업적 총점 계열별 상위 10% 이내 △최근 3년간 국제, 국내저명 논문

장충식 교수 별세

장충식(미술사학과) 전 박물관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3시 57분으로 별세했다. 우리학교 인도철학과 출신인 고

인은 1993년부터 우리학교 정교수로 재직했으며 경주 인문과학대학장과 박물관장을 지냈다. '고려 화엄판화의 세계', '신라 석탑연구', '한국의 불상', '한국금석총목' 등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숙 여사와 2남이 있다. 영결식은 지난 4일 오전 10시 박물관에서 진행됐다.

우수장학금 신청 16일부터 학업지도교수에게 제출

2005학년도 1학기 우수장학금 신청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 우수장학금은 평균평점 3.0이상인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의 30%를 감면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서를 비롯해 재산세 증명서와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학업지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참가랍봉사단에서 활동한 학생인 경우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없이도 인정된다.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50% △가정형편 20% △사회봉사 10% △학업지도교수평가 20%이다.

김경재 동문 명예박사 학위 수여

동문과 후배 후원·봉사 공로 인정

김경재(농학 69출)동문이 지난 개교 99주년 기념식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번 학위수여는 김 동문의 남다른 애교심으로 동문과 후배들에게 후원과 봉사에 힘써온 공적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김 동문은 지난 1994년부터 6년 동안 로스앤젤레스 동국대학교 동문회조직을 수행하면서 동문들의 친선도모와 의의를 다지는 데 노력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남가주 동국대학교 동창회 장학회를 설립하여 동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

동국대학교 건학100주년 기념사업 공모

발전기금 060-700-0119

1. 목적 2. 공모 분야 3. 참가자격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5. 선정 절차 및 기준 6. 당선작 발표 7. 상금 및 사업지원비 지급(총 상금 36,000,000원) 8. 당선작의 활용 9. <사업비 지원분야> 선정 시 의무사항

건학100주년기념사업회 · 동대신문사

학교·비대위 학자요구안 논의 활발

시설·교육 과정 등 다양한 분야 건의사항 긍정적 검토

지난 달 13일부터 시작된 학생처(처장=조의연·영어영문학과)와 단과대 학생회장단 간의 학자요구안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각 단과대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 및 복지시설 증가를 위한 것으로서 건설적인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자 요구안 회의는 학생복지실이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부서와 학생회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정보관리실, 학사지원실, 시설관리팀 등의 관련부서와 학생회의 논의 자리가 있었고 앞으로 심사평가팀 등의 부서와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안건들을 정리해 보면,

시설과 관련해서는 사위실 설치와 사물함 설치가 긍정적으로 얘기됐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은 총학생회비대위(비대위원장=구본훈·국교3)에 각 단과대 별 사물함 수요 조사를 요청했고 사물함 설치에 공금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강의평가 결과 공개와 교양강좌 실용성 강화가 중요한 안건이었다. 특히 이번이 마련된 교육업적평가에 강의평가가 40% 반영됨으로써 강의평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교육업적평가가 시행 초기에 있는 상황에서 강의평가 결과 공개는

무리라는 의견이 있어 보류됐고 대신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강의평가 결과가 교수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또한 교양강좌 실용화를 위한 실용영역 강좌의 토익, 텡스 전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과의 산학협력 체결에 의한 실습 기회 확대도 안건으로 다루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무관계 회의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사안은 공학인증제였다. 공학인증제와 관련해 인정 과목 협소로 인한 과목선택 자율권 침해, 정산대 내 몇몇 학과 공학 인증 불가 등 여러 가지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공학

인증제와 관련된 불만사항을 수합해 교외에 있는 공학인증센터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학생회관에 분구 및 복사 매점과 테이크 아웃 커피점을 설치하는 사항도 긍정적으로 논의됐다. 이는 총학생회실 공사과 함께 빠르면 이달 중순에 업체 선정에 들어가 6월 말이면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학교와 학생회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관련해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논의자리를 상설 기구화 해서 올 한해 내내 학생회와 의견을 나누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회전무대

게시판은 지금

○...요즘 각 단과대 게시판에서 공개수배(?)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데.

무슨일이고 하니, 최근 찾아진 학내 절도사건 범인들을 찾는 게시물이 많이 부착되고 있는 것이라고. 장소 구분없이 부착되는 분실물 관련 게시물을 위한 부착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분실물 부착란을 찾습니다!"

무임배식(?)

○...학교 구내식당에서는 매 식사 시간이면 의도하지 않는 무료 배식이 이뤄지고 있다는데.

알아본즉, 비양심적인 학생들이 식권을 구매 후 식권 함에 반납을 하지 않고 식사를 한다.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양심적으로 식권을 반납해야겠지만 잔고장으로 사용이 중단된 뽕뽕 식권함(?)을 고쳐 철거한 감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무임배식 받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음식. 양심스테이크(?)"

무기명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교내 양성평등을 위해 마련된 여학생실이 명찰을 달지 않아, 그 존재를 모르는 학생이 많다는데.

상황인즉, 여학생실 건물 앞에 문패가 없어 그 있을 지나가도 그곳이 여학생실인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고.

지속적인 홍보와 문패를 설치해 인지도를 높여 여학생들의 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비공개로된 이름, 이제는 명찰달고 전 제공개로."

국수 없는 잔치

○...작년까지만 해도 개교기념행사의 백미로 불리던 잔치국수가 올해는 사라졌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올해는 생협의 예산이 줄어들어 부득이하게 녹차와 떡으로 대신 할 수밖에 없었다고.

앞으로 잔치국수를 기대하기 위해서 학교 식당을 애용하고 정직하게 식권을 내는 학생들이 늘어나야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잃어버린 잔치국수에 개교기념일은 오는 가?"

신임 백경선 총무처장 인터뷰

"단계적으로 학내 건물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 진행할 것"



지난 2월 대대적인 직제개편과 함께 인사이동이 있었다. 올해 각 부서 주요 업무 계획과 목표를 알아보기 위해 본사에서 새로 취임한 처·실장과 부속기관장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 공근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 장기적인 해결방안은 부지확장이다. 우리학교 총 부지는 현재 4만여평이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적으로 부지매입이 추진될 경우 8년후 6만여평까지 학교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돼 공간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공간문제 해결방안은 정해진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여름방학 때 동국관부터, L동은 경영대학 건물로 M동은 사회과학대학 건물로 공간재배치를 할 예정이다.

- 우리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 전체적으로 건물내부와 외부 모두 손 볼 곳이 많다. 우선 건물내부는 영상·음향 장비,

보안·난방 시설 등이 미흡한 강의실이 많다. 따라서 예산이 뒷받침 되는 대로 매해 1개 건물씩 공간재배치와 함께 리모델링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여름방학 때는 동국관이 예정돼 있는데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합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정문 내부 진입로 직선화 공사를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대운동장에서 정문으로 이어지는 오수·우수 관로 분리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문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 구성원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2학기부터는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 직원인사제도가 변경된다는데.
= 능력위주 인사제도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다. 따라서 우리학교 또한 능력을 최우선시하고 다면평가를 통한 평판도를 인사에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제도 개편안을 신인사제도연대 구워위원회가 구성돼 논의 중에 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직원 공청회를 거친 후에 제도화 할 예정이다.

또한 담당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나치게 잦은 인사이동을 피하고 순환근무 주기는 약 3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교직원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해외연수, 석·박사 위탁교육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중구청과 사업 협약 체결

총무아트홀 스포츠센터 위탁 운영 의

지난 6일 우리학교(총장=홍기삼)와 서울특별시 중구청(구청장=성낙환)은 신규사업을 포함한 '총 5개 분야 16개 단위사업'에 대한 교류협력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양 기관 실무자 및 부서간의 구체적인 의견교환과 조정을 통해 97년부터 진행해오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신규사업 발굴을 끝마친 결과이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실질적으로 우리학교와 중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5개 분야 16개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문화에 관한 사항=본교 법당시설 주민이용 개방, 본교 체육시설 개방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각종 위원회 본교 교수 위촉 △지역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총무아트홀 스포츠센터 위탁 운영, 동국대학병원 의료봉사 등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교육 기회제공=주민·구청직원 위탁 전산교육, 영상체험·교육 및 시네마테크운영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후호증진=본교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본교생 아르바이트 기회 확대이다.



우리가 배울 책 ... 외국 학술 도서 전시회가 지난 2일부터 3일간 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연구·수업에 필요한 원서를 교수가 직접 보고 추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약 5천여권의 외국 도서가 전시됐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법요식

15일 대각전 법당에서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한 봉축법요식이 오는 15일 오전 8시 30분 대각전 법당에서 열린다. 이번 법요식은 홍기삼 총장의 축사와 정각원장 진월 스님의 설법으로 진행된다.

정각원장 진월 스님은 "봉축법요식은 부처님 오신날을 기리고 부처님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는 뜻 깊은 자리"라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동안의 행적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봉축법요식은 조계사 등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개최된다.

한편 정각원은 오는 24일 4시 본관 중앙당에서 수계식을 진행한다. 수계식 참가신청은 17일까지이다.

이번 수계식은 건전한 생활과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대한 다짐을 통해 미숙한 과거를 정리하는 자리이다.

이날 수계는 진월 스님의 수계사로 진행되며 수계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교직원 △학생 △일반인들이 계를 받는다.

교원 장기 근속자 표창

지난 6일 거행된 건학 제99주년 기념식에서 장기근속교원 56명이 표창받았다. 서울캠퍼스 교원 장기 근속자 표창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30년 근속 = 서윤길 △20년 근속 = 김해중, 남궁옥, 연기영, 장오현, 오세만, 조암 △10년 근속 =

이종대, 신성현, 황종연, 박명관, 안성현, 이주성, 김형상, 황태연, 김종일, 송병호, 이형우, 고유환, 과노성, 유석천, 황경태, 윤화영, 이상일, 조정식, 광문규, 방세운, 성관재, 김준태, 박준영, 김황복, 장영우

중앙도서관에서 독서토론회 개최

중앙도서관(관장=정진환·교육학)에서는 오는 26일부터 독서토론회를 개최한다. 독서토론회는 진행자 1인(교수 혹은 강사)의 사회로 토론자 10인(학생, 대학원생)이 선정된 도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독서토론회는 학생들의 교양역량을 강화하고 독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 정착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

된다. 참여를 원하는 교수는 핸드오피스, 전화 혹은 e-mail을 통해 학술정보 서비스팀에 신청하면 된다.

토론을 원하는 학생은 토론날짜 2주전부터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 1회 독서토론회는 엔트 로피를 주제로 26일 오후 3시 중앙도서관 자연과학실에서 최인숙(철학)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동원한마당 행사안내

- 일정**
 - 5월 9일 ~ : 축구 예선(운동장)
 - 5월 16일 ~ : 농구, 축구 예선(만해광장)
 - 5월 20일 : (오전) 축구, 농구, 축구 결승 (오후)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7인8각, 여자팔씨름, 고무신던지기
- 팀구성** : 과별 또는 연합팀
- 참가접수기간**
 - 4월 25일~5월 6일 : 축구, 농구, 축구
 - 4월 25일~5월 18일 :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7인8각, 여자팔씨름, 고무신던지기
- 참가신청 방법**

총학생회 직접방문 및 총학생회 홈페이지(단, 4팀 이하 신청 종목은 자동폐기)
- 상품**
 - 종합우승 : 에어콘
 - 종합준우승 : 대형 컬러 TV
 - 종목별 우승 : 축구-복합기, 농구-가습기, 축구-전자렌지, 줄다리기-오디오, 7인8각-세탁기, 단체줄넘기-프린터, 여자팔씨름-USB메모리, 고무신던지기-USB메모리
 - 종목별 준우승 : 전공목 냉풍기
 - 기념품 (학교로고가 새겨진 예쁜 양말-참가자 전원)
- 부대행사**

녹두서점 도서함인권(30%)배부(5월 16일부터 27일까지 총학생회 및 동원한마당 진행장소)

* 각 과에서는 빠르게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총학생회

한국문화연구단 상반기 문화포럼

2005년 상반기 동국대 한국문화연구단이 문화포럼을 개최합니다. 한국문화연구단은 문화콘텐츠팀과 현대문화연구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년에는 문화일반에 관해 송승철(한림대), 유선영(한국언론문화재단), 양은경(충남대) 선생님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Mapping : 새로운 문화 지형 상상하기'란 주제로 5월 한 달 동안 각각 게임, 문화, 생태학 등 문화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합니다. 이번 포럼의 목적은 기존의 문화연구의 일반적인 틀을 확장해서 새로운 문화의 지평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는 것 입니다. 문화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임, 생태학을 통해서 문화연구의 나아가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문화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김민규(한국게임산업개발원) : 게임 어떻게 볼 것인가**
2005년 5월 14일(토) 오후 2시 다량관 세미나실
- 노명우(미디어문화연구소) : 문화연구의 새로운 조건과 연구과제**
2005년 5월 21일(토) 오후 2시 다량관 세미나실
- 응우기(Ngugi), 케냐 소설가 : 탈식민주의와 생태학**
2005년 5월 28일(토) 오후 2시 만해관 모의법정실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단

칭찬합니다

본사에서는 2006년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내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칭찬합니다'를 기획 연재한다.

⑦ 책속에서 미래 찾는 노승재(경영4) 군

- 책을 많이 읽는다는데 어떤 분야의 책을 주로 읽는지.
책을 읽으면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독서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경영학 전공이다 보니 성공한 경영자의 자서전을 많이 읽는 편이다.

그중에서도 고 정주영씨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란 책을 인상깊게 읽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끈기와 노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점이 존경스러웠다. 또한, 경영자로서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능력이 뛰어나 훌륭한 경영자로서 평가받는 것 같다.

- 중앙도서관 애용자로서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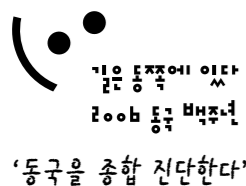
시설면에서 우리학교 중앙도서관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국인들 중에는 아직 중앙도서관에서 도서대출이외에 멀티미디어실 이용이나 책에 첨부된 카세트테이프 등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도서관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또, 전화가 왔을 때 밖에 나가서 받는 휴대폰 예접이나 친구와 할 얘기가 있을 때는 휴게실을 이용하는 등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경>
nanakm@dongguk.edu

종합기획 2. 교육 분야 ③ 교수 처우



열악한 급여수준, 교육·연구의 질 저하로 질 높은 교육환경 위해 시급한 처우 개선 요구돼

타 대학에 비해 열악한 교원 급여 수준으로 인해 실력 있는 교수들이 타 대학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더해 교수 임용 시에도 지원자의 수가 적거나 자격 기준에 미달되는 지원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교수 수가 부족한 학과에 교수 선발이 미뤄지거나 성립되지 못하는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주간 2만9,300원, 야간 3만1,000원으로 책정되고 있다. 이 같은 강의료는 타 대학들이 적게는 3만원대에서 많게는 5만원대까지 시간당 강의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관리학과 이종욱 교수는 "교수들의 주 업무인 교육이나 연구보다 다른 외부 활동에 더 신경 쓰게 되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교수들을 대표하는 교수회가 교수들의 '임의기구'로 인식돼 학교에서는 교원 임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과정이 교수들의 의견 수렴이나 협의 과정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타 대학 보다 적은 강의료

우리학교의 현재 시간당 강의료의 경우 전임교수들의 책임 강의 시간을 초과했을 때 지급되는 초과강의료가 주간 1만8,400원, 야간 2만8,8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의

실제로 전임강사를 비롯한 전임 교수까지도 급여의 보충 등을 위해 외부 활동이나 타 대학의 특강 등에 참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수의 외부 활동은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기회 축소와 함께 교육, 연구의 질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의견 수렴 통로 필요

이 같이 교수들의 급여와 관련한 처우에 대한 불만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쉽게 해결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교수 연구·교육 환경 실태 점검

대학원생 등 연구 인력 부족·외래강사 교육환경 개선 시급

지난 3월 학교 측에서 제시한 연구지원 및 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해 교수회 등 일부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발하고 있는 교수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제도 변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연구·교육 환경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도 강화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특히 학과 특성상 실험, 실습 등이 병행한 연구가 이뤄져야 하는 공대, 정산대 교수들의 경우는 무엇보다 현재 대학원생 등 연구지원 인력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을 교수하고 있어 교수들의 연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열악한 연구실, 연구 공간 등은 아직 일부 대학에서는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생들에게 배부할 강의 자료도 직접 자비로 복사해서 나눠주는 강사들이 있을 정도"라며 "외부 강사들에 대한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 환경=교수회에서 우리학교 교수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수복지문제와 교육, 연구 환경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수의 59.9%가 불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수는 6.1%에 그쳤다.

▲교육 환경=교육 환경과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교수들이 예년에 비해 점차 개선돼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문과대 등의 강의실에는 부족했던 빔 프로젝터 시설, 음향시설 등도 확충돼 강의하는 데 불편함을 덜어 주고 있다.

반면 외부에서 우리학교에 강의를 나오고 있는 외래강사나 석좌교수 등의 경우는 여전히 수업환경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의 연구를 위한 별도의 연구실이나 교수 휴게실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의 자료 등을 보관할만한 공간 역시 마련돼 있지 않은 현실이기에 때문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사설

누구를 위한 대입제도인가

지난 7일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내신등급제' 반대를 외치며 임시경쟁에 희생된 자살학생의 추모제를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첫 중간고사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구체적인 전형요강을 내놓지 않아 대입준비를 '숨은그림찾기'로 만든 교육당국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동국만평

정명근 gmgce@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김지은, 편집인: 김지은, 부주: 김지은, 편집: 김지은, 편집: 김지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경주캠퍼스 (우)1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2005학년도 본교 파견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선발계획
1. 파견기간 : 2005. 9. ~ 2006. 8. (1년)
2. 교류대학 및 선발인원
3. 지원자격
4. 파견조건
5. 장학금
6. 신청서류
7. 전형일정

2005학년도 일본 삿포로학원대학 단기 학술문화연수(파견) 시행계획
1. 행사 개요
2. 신청기간 및 인원
3. 신청서류
4. 장학금

국제교육원
졸업요건 영어패스제 토익시험(5월) 시행
1. 접수 : 5. 9(월)~5. 13(금) 9:00~17:00 국제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
2. 시험 : 2005. 5. 21(토) 10:00~12:30 해외관 1, 2층

스승의 날 기념 제3회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공모전
"좋은 강의 추천하고 장학금도 타고 ~*"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좋은 강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3회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보리식

두 분의 스승을 만나는 날

일생을 살면서 장수하고, 부유하며,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평소 도덕 지키기를 낙으로 삼으며, 그렇게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는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 옛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를 5복(福)이라 여기고 그런 삶을 동경해왔다. 지금도 이 다섯 가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더하고 싶다. 그것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일이다.

아버이의 몸을 빌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사람은 그저 희노애락의 감정에 휩싸이며 본능에 충실한 '좀 진화한 생명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존재에게 '세상에는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어떤 기술과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가르쳐주어 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가 스승이기 때문이다.

스승을 의미하는 선지식(善知識)이란 말이 있다. 좋은 안내자, 훌륭한 인도자란 뜻의 이 말은 좋은 친구 즉 선우(善友)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다.

거친 세파에서 나를 지켜 주고, 나와 함께 같은 행을 하며,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 자연의 이치에 따라 순조롭게 삶을 살아가게 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진정한 영원한 재산을 내 손에 쥐여주는 사람. 이가 바로 스승이다.

내게는 그런 스승이 두 분이나 계시다. 은사하신 고(故) 고익진 교수님과, 이 분을 통해 만나게 된 위대한 스승 석가모니가 그분이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스승의 날과 한 날이다. 내 일생을 통틀어 가장 귀한 벗을 만나는 이 날, 고운 언들을 밝힐 생각에 가슴이 뭉다. 그대에게 묻노니, 이 날 그대의 가슴을 잔잔하게 흥분시켜줄 스승이 계시는가.

이 미령
역경원 역경위원

달하나 천강에



노 현균
문과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일주일이 지나면 '스승의 날'이다. 해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평범한 하루였지만, 올해의 그날은 나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두 스승에 대한 추억을 회고하며 감사사를 표하면서 보내고자 한다.

나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뉴욕주의 버팔로(Buffalo)에 있는 뉴욕주립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였다. 뉴욕주립대학은 여러 곳에 캠퍼스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버팔로 캠퍼스는 우수한 영문학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지역적으로 버팔로는 뉴욕주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뉴욕시까지의 자동차로 8시간 정도 걸린다. 캐나다와 국경을 마주하여 미국문화와 캐나다문화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나이아가라 폭포가 가까이 있어 공부하는 틈틈이 자연의 아름다움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내가 소개하려는 두 선생님은 대학원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던 마커스 클라인(Marcus Klein) 선생님과 헨리 쉘스만(Henry Sussman) 선생님이다.

클라인 선생님은 내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 선생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으며 꼭 지도를 받고 싶었던 분이다. 선생님을 처음 만난 것은 유학 초창기 시절의 '미국소설' 수업시간이다. 모든 것에 어눌하고 의기소침해 있던 외국 유학생인 나에게 선생님은 항상 용기를 잃지 말라고 북돋워 주셨으며,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하셨다.

그렇게 수업시간에 맺은 관계가 좋은 인연이 되어 선생님은 박사논문의 지도교수로 모실 수 있었다.

선생님은 처음에는 나의 지도교수가 되기를 거부하셨는데, 그 이유는 퇴임을 한 학기 남겨두셨기 때문이다. 여러 번 간곡한 부탁의

스승에 대한 추억을 더듬으며

말씀을 드려야 선생님은 나를 마지막 논문지도학생으로 받아 주셨다.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 -적절한 논문주제 선정문제, 본문 각 장의 구성문제, 무엇으로 각 장의 처음을 시작할지의 문제 등등- 그때마다 선생님은 내가 동요하지 않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히 하여 나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셨다.

마치 헝클어진 실타래에 묶여 꼼짝달짝 할 수 없을 때에 그 실의 시작과 끝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신 길잡이 같은 분이였다.

논문을 쓰는 동안은 주로 선생님의 집 그리고 택에서 가까운 동네 커피숍에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커피숍의 생김새와 커피향, 그리고 달콤한 머핀 냄새를 잊을 수 없다.

그 커피숍에서의 만남은 내가 논문의 한 장을 끝내고 선생님께 보여드릴 때의 기분 좋은 순간이거나, 혹은 글이 풀리지 않아 좌절해 있을 때 둘 중의 하나였다. 커피숍을 나올 때는 항상 기분이 좋았는데 그것은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웅덩이(pothole)에 빠진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헨리 쉘스만 선생님은 비교문화학과 교수로 문학이론을 가르치셨다. 나는 선생님에게서 논리적인 사고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왜(why)'라는 질문을 받음으로써 지적 호기심을 키우게 되었다.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어떻게 인내심을 갖고 살아가는가'인데, 몸소 그 실질을 보여주셨다.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나 자신이 가끔 마음의 균형을 잃고 동요하는 순간 쉘스만 선생님이 눈앞에 어른거리곤 한다.

선생님에 대한 추억 중 잊지 못할 한 가지는 내가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날 밤의 일이다. 짐 정리로 한참 정신이 없는데 선생님이 나의 집을 방문하셨다.

귀국하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직접 추천서를 가지고 오신 것이다. 마지막까지 학생을 배려하는 그 모습에서 나는 진정한 공부란 무엇인가를 느낄 수가 있었다. 두 분 선생님과 경험을 통하여 나는 학생을 비판하는 교수보다 학생의 잠재적 동기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수가 되기를 결심하면서, 다시 한 번 멀리 바다 건너에 계신 두 분 선생님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문장은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게보 : dgupress@dongguk.edu



지난 4월 30일(토) 남산 한옥마을에서 열린 문예창작학과 신입생 백일장에서 장원작에 선정된 작품을 소개한다.



손잡을 수 있는 집

최두호(예술대 문창1)

고색장연한 전통 가옥은 찾아보기 어렵게 된지 이미 오래다. 우리에게 조상의 숨결 윤택할 오랜 집들은 교과서 혹은 잡지 속에서나 도록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굳이 한옥이 아니더라도 우리 앞에서 단절된 전통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정체성이라고 이르는 정신이야 오롯이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통 문화에서 받는 느낌이 '동경'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동경도 아름다움의 주요한 측면이긴 하지만 우리 가까에서, 친숙하게 느끼는 감정은 아니다. 감히 말하건대 이제 전통 문화에서는 보드라운 누이의 손에서 느끼는 친숙한 아름다움은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요즘, 내가 고가로서 건축가 코프비지예의 콘크리트 건축물이나 바우하우스의 건물, 좀 더 올라가서 베르사유의 궁을 떠올린다면 지나친 것일까? 나는 높은 계단을 올라서 유리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반짝거리는 구두를 바라본다. 외래문화에 몸을 적시고 사는 내가 오래된 서구의 집에서 미를 느끼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생경하지도 않다. 통탄할 일이지만 지금도 나는 붓이 아니라 볼펜으로 글을 쓰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전통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진정한'이란 말을 고가에 붙여본다. 진정한 고가는 그 안에서 폭진 할머니와 염색한 손자가 부끄러움 없이 손잡을 수 있는 집이다. 언제나 문은 열려 있어야 하고 담벼락이 너무 낮아서는 안 된다. 장독대 맞은편 안채에서는 남자 아이가 컴퓨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내게 진정한 고가는 있었다. 예전에 우리 일가는 도시문명의 낙오자로서 분의 아니게 편리의 자리에 지금의 여유와 생활함을 날여야하는 일을 겪어야 했다.

할머니는 언제나 넉넉했다. 본디 고가처럼 말수가 없는 분이셨지만 집을 싸들고 친전택으로 찾아가면 그해 겨울에는 유난히 빨강계 옷기만 하했다. 오후에 쥐어주신 열린 홍시 같았다. 그리고 한복을 사가지고 며 어머니에게 다가오셔서 등을 두어번 도닥이는 것으로 초라한 입성을 끝마쳤다.

친전택이 부마도우나 숙정공의 집처럼 커다란 고택은 아니었다. 오히려 조그만 시골집이란 말이 어울렸다. 내력부터가 그랬다.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 쯤 어느 높은 벼슬의 사내가 윗분 할머니를 첩으로 삼음으로 별당으로 내렸다는 이 집은 딱 그에 걸맞게 조촐했고 집 위에는 웬만해서는 심지 않은 대추가 흔해서 딱히 버리고 서서 바람이라도 불면 분치의 원한을 심뜩하게 외쳐대고 있었다. 나는 그 대나무를 본처가 심었다고 추후의 의심 없이 확신했다.

나도 첩이 될 때의 나이래 대강의 집안 사정은 눈치 채고 있었다. 여는 손자처럼 집안을 버트집고 다닐 수는 없었다. 조용히 방구석에 끄러져 있거나 여름에는 우물 옆에서 봉선화나 지어대며 혼자 놀았다. 계절은 언제나 혼자서 찾아왔고 혼자서 맞았다. 나는 그렇게만 생각했다. 그해 팔월이 똑같은 옷을 입은 두 명이 마당으로 들어왔다. 의아해하는 나와 달리 할머니는 잠시 문득했다가 내방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나는 번듯한 컴퓨터를 가진 진천국민학교의 다섯 명의 아이 중 하나가 되었다. 그 후에 집안의 많은 것이 전자제품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렇게 진정한 고가에서 할머니와 손을 잡았다. 그리고 외로움을 벗었다. 연연히 이어져 내려오는 오래된 집과 현재를 사는 사람의 세로움이 친밀함으로 묶인 것이다. 단순히 고립을 피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소급되어 올라가는 조상을 알았고 든든한 내력을 알았다. 현재에 충실한 나 삶은 또 다른 이의 있음을 따듯하게 증명할 것이다. 그 사람이 유비쿼터스를 사용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불펜으로 고가를 썼지만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나는 콘크리트를 부끄러워해서도 안 된다.

영화의 잔상
상업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P.O.V란 'Persistence of vision'이란 말의 약자로서 '영상의 잔상'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지했을 때 그 사물의 잔영이 머리에 남아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만화의 수많은 그림들이 연속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인식했던 그 장면이 머리 속에서 지속되면서 다음 장면과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P.O.V는 우리 실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유익하게 쓰인다. 그러나 영상의 잔상이 악용되는 사례도 많다.

일전에 이런 실험이 있었다. 영화 관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첫번째 그룹은 정상적으로 영화를 감상하고 두번째 그룹은 수많은 프레임 가운데 몇 개의 프레임에 올라 그림을 삽입하였다. 굉장히 적은 프레임에 그림을 삽입했음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결과는 놀랍게도 첫번째 그룹보다 두번째 그룹이 극장가 상점들의 물가 대상을 3배나 올려주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의 잔상'이 상업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P.O.V의 사용이 조금은 걱정스럽다. 컴퓨터라면 몰라도 우리들은

P.O.V라는 양날의 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인식체계를 가진 인간일 뿐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P.O.V의 장, 단점을 제대로 알고 장점만 적절히 이용해야 할 것이다.

장창복(문과대 영문1)

'베로니카 죽기로 ...'를 읽고
삶의 의미 총탄함 느껴

초반에 베로니카가 말하는 자살론과 그 당위성은 삶에 대해 굉장한 애착과 자살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사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도 자살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그런 식의 회의는 누구나 한번은 느낄 수 있는 문제다. 단지 구체화의 정도와 깊이 그리고 그 해결책의 차이에서 자살이나, 체념이나, 망각이나가 결정될 뿐이다.

책을 읽을수록 자살은 베로니카만의 논리의 틀에서 벗어나 좀더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면으로 확장된다. 베로니카의 굳은 의지만큼이나 자신의 결심에 대한 회의와 삶에 대한 미련이 언뜻 언뜻 커져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읽는 이 또한 자살의 현실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자살을 이해한다는 것은 '왜 자살을 해야 했나'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차츰 삶의

의미도 생각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다. 베로니카의 심리적 변화와 그 변화를 가져다주는 계기를 살펴보면 차츰 코엘류가 생각하는 삶의 의미에 몰입할 수 있게 됐다.

이 책을 다 읽을 때쯤 중학생때 지구과학 수업을 듣다가 우주의 광범위함과 혼돈 그리고 확률에 대한 애기와 함께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물학·철학적인 궁금함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현기증이 났었던, 그 하찮음과 소중함을 동시에 느꼈던 기억이 떠올랐다.

물론 계속 생각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무거운 주제였기에 당장에 포기해버렸지만 굳이 거대한 우주 같은 것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소중한 사람들과 앞으로의 가능성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서의 나에게 삶의 의미가 총탄한 듯싶다는 생각이 든다.

장소라(예술대 문창3)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보통신
알맞은 윤리교육 시급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것에 알맞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역기능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누구나 한번쯤은 알게 모르게 스팸 메일이나 바이러스 등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고,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사고와 인터넷

뱅킹 해킹 등 여러 범죄를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피해들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여러 법령 등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분명히 한계적이고 강제적이거나, 조금 지나면 법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법으로서 강제적 규제를 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스스로 자율적이고 양심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터넷 윤리 교육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정보 통신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반면, 정작 필요한 인터넷 윤리 교육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윤리 교과서를 봐도 정보 통신 관련 예절 교육은 현재 인터넷의 중요성에 비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올바르게 인터넷을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식시키려면 기본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적 측면보다는 법적 제재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정보 강국이라고 자랑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동시에 그에 알맞은 예절과 문화를 배움으로써 인터넷 윤리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송철민(문과대 윤리문화 4)



신문장원

고가

정경윤(예술대 문창1)

빨간 신호등이 버릇처럼 켜지고
중년 남자와 발뒤꿈치 망가진 여자는
서둘러서 않고 횡단보도를 건넌다
남자 어깨에 매달린 여자 솔더백에는
점이 지워진 마릴린몽로가 살짝처럼 웃는다

중년 남자의 집에는 오래된 여자가,
방뿔 휘산단추를 버릇처럼 누르고
용달차를 불러 세워 사다 놓은
일부 두 단을 신출나게 다듬는다

오래된 여자의 다리 사이에는
땅에 묻고 잊어버린 장독보다도
오래된 동굴이 있다
남들이 들리지도,
아이가 자라지도,
달마다 흐르지도 않는 옛 집이 있다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 달빛, 연등, 시 축제 Festival 시민들과 함께하는 서정의 저녁

금주의 식단

	월(5/9)	화(5/10)	수(5/11)	목(5/12)	금(5/13)
동국관	참치찌개 (1800) 리조우 (2000) 떡볶고기 (2000)	육개장 (2000) 모듬볶음밥 (1800) 부꾸미볶음 (2000)	돈갈비김치찌개 (2000) 닭도리탕 (2000) 부꾸미볶음 (2000)	설렁탕 (2000) 오징어볶음 (2000) 참치회덮밥 (1800)	순두부찌개 (1800) 제육콩나물볶음 (2000) 소고기볶음밥 (1800)
상록원	쇠고기해장국 (1800) 참치김치덮밥 (2000) 간종기 (2000)	닭곰탕 (2000) 햄볶음밥 (1800) 비빔밥8품연무침 (2000)	순만두국 (2000) 제육볶음 (2000) 생선기스 (2000)	짜개백반 (2000) 김치조림 (2000) 김치볶음밥 (1800)	김치탕 (2000) 쇠고기카레라이스 (2000) 오징어소면무침 (2000)
교직원	원장찌개 (3000) 부대찌개 (3500) 자반무조림 (3500)	원장찌개 (3200) 삼계탕 (5000) 황태구이 (3000)	원장찌개 (3200) 콩국수 (3200) 버섯떡고기 (3800)	원장찌개 (3200) 돈가스 (3500) 해물덮밥 (3800)	원장찌개 (3200) 돌솥비빔밥 (3500) 아구찜 (3800)
원향	북어해장국 (2000) 카레돈가스 (2900) 참치김치찌개 (2500) 해장국 (2500) 쇠고기찜관복음밥 (2000)	쇠고기국국 (2000) 닭도리탕정식 (2900) 오징어김치덮밥 (2500) 돌솥비빔밥 (2800) 버섯원장찌개 (2500)	사골우거지국 (2000) 오모리라이스 (2900) 순두부찌개 (2500) 우거지갈비탕 (2900) 미꾸라지 (2500)	김치탕 (2000) 설렁탕 (2900) 얼무비빔밥 (2500) 찰국밥김치 (2500) 순만두국 (2500)	원장찌개 (2000) 베이컨김치볶음밥 (2900) 짬뽕국 (2500) 생선매운탕 (2900) 콩나물밥 (2500)
교직원	평양비빔밥 (3500) 버섯전골 (5000) 돈육떡볶 (3500)	고추장찌개 (3500) 생이채비빔밥 (5000) 해물찌개 (3500)	떡볶이불고기 (3500) 청국장찌개 (5000) 고등어김치조림 (3500)	콩비지찌개 (3500) 두부김치정식 (5000) 영양밥 (3500)	수제치킨가스 (3500) 숙갈국수정식 (5000) 육개장 (3500)

우리 학교의 변화와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지금은 건학 100주년을 앞두고 구성원 전체의 단결과 결속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동대신문은 동국 가족들에게 보내는 '총장의 편지'를 특별 기고 형식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총장의 세번째 편지

동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존경하는 교수님들에게

존경하는 교수님들에게
아카시아 꽃향기의 길을 따라 신록의 계절이 왔습니다. 천지간에 푸릇한 생명이 다시 솟아오르는 장관을 보고 있으려니 어려서 읽은 당나라 시인 유희이(劉希夷)의 시구가 떠오릅니다. "해가 가고 해가 가도 꽃은 서로 비슷하건만 해가 가고 해가 가니 사람은 같지 않구나." 신록을 마주하면 세월의 덧없음이 한층 더해서 다가옵니다. 동국대 교수님들의 열정 덕택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의 경험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서 연구와 교육에 임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업적이 험난 나운 다른 대학의 교수들의 업적보다 훨씬 많은 고민과 분발 끝에 나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의욕이 결맞은 환경을 욕심만큼 빨리 만들어드리지 못

는 것을 늘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이 많은 결핍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임무를 다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 역시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교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행된 연구 업적 및 교육 업적 평가 제도 개선을 불편하게 느끼시는 교수님들이 적지 않은 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 개선은 연구 능력 및 교육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 변경이 바로 대학의 생존을 결정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자기개혁에 성공한 다른 대학들이 어떻게 제도를 정비했는가를 공정한 마음으로 살펴보시기를 중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한 교수님들의 업적에 대한

보상이 흡족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많은 업적을 쌓은 교수님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실 만한 보상 제도 개선은 학교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미래는 교수님들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전공 분야에 공헌할 새로운 발견에 이르러자 어두운 적막 속에 불을 밝힌 연구실로부터. 모자라는 제자들을 측은히 여겨 열성을 다해 가르치는 강의실로부터 우리 대학의 미래는 환하게 시작됩니다.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봉사는 오월의 캠퍼스에 변함없이 신록의 계절이 솟아오르듯이 100년 역사의 우리 대학에 '초원의 빛'을 영원히 머물게 하리라 믿습니다.
이규혁(이과대 반도체3)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학생 참여 방안 노력할 것 잘못 감싸기보다 채찍질도 해야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학술면을 보면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에이즈를 아이টে็ม으로 잡은 것은 엉뚱한 면이 있었다. 이전에 여러 곳에 이슈화했던 아이টে็ม을 사용하는 것보다 시기에 적절하고 구성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이টে็ม을 찾기 위한 기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면과 문화면의 경우 박영석 등문과 농어촌 관련 아이টে็ม 사용이 시기적인 면에서 비중면에서 적절하게 다루졌다.
전체적으로 동대신문을 보면 일부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면이 꾸러진 것 같다. 대학신문의 주 수요자인 학생들을 참여시키거나 이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기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신문의 역할은 대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내외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에 잘못된 부분을 감싸는 것보다 때로는 채찍으로 잘못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학내 여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동대신문이 되길 바란다.

e-열린글터

일산 불교병원 성공적인 개원을 기원하며

나는 71학번으로 75년도에 학부를 졸업하고 2002학년도에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졸업생으로 현재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현직중등교감이다.
우연찮게 우리 대학병원이 일산에 건 축하게 되어 여러 지인들에게 많은 자랑을 하고 있고 자그마한 성금도 내고 하면서 얼마나 개원을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 한해 두해 개원이 늦어지더니 이젠 외곽에 걸려 있던 병원 안내판조차 없어진지 오래 됐다.
내년이면 개교100년을 자랑하고, 1000만 불자가 밀바람에 깔려있는 우리 모교가 종합병원하나 정시에 개원하지 못하고 갖은 루머에 시달리는 현상을 보면서 너무도 답답하고 한심하여 한글자 적어 본다.
개원을 못하는 이유를 어렵פות이 짐작을 하기에 한심하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아직도 인일무사로 철밥통을 차고 서 자

사행정당당자들이 있는 것 같아 그들부터 과감하게 버렸으면 좋겠다.
수천여원을 들여서 준공한 병원건물이 2년씩이나 텅실하게 서 있는데도 외곽에 학교 이름표 하나 달려도 하지 않는 직원 이 학교에 무슨 필요가 있는가. 우연찮게 건물 옆을 지나다가 행인들이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한심한 험담속에 우리학교의 위치가 보였다. 이젠 제발 앞서는 대학, 진취적인 기상을 펼치는 모교가 되었으면 한다. 전통을 자랑하기전에 앞을 바라보고 진실로 여러사람이 고대하는 전통종립 학교가 되도록 동국인 모두가 노력하도록 합시다. 어느 대학은 학교 이름을 홍보하기 위하여 수천만원 씩 쓰기도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곳이 "동국대학교 의대 병원"임을 알리는 간판이라도 걸어 두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는 너무 앞서가는 욕심인가. 답답합니다.
작성자 조샘 euyguj@hanmail.net

메아리

악연의 끈

▲살다보면 좋은 삶든 맺어지는 게 인연(因緣)이다. 그리워하는 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세 번 만났다'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필가 파천득과 아사코의 애뜻하고 아름다운 인연이 있는가 하면, 기억하기조차 싫은 악연도 있다.
▲지난 4·30 재·보선으로 정국 구도가 여소야대로 바뀌었다. 이에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민주당과 우리당의 합당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인연은 악연으로 보인다. 우리당과 민주당은 원래 한 몸이었다.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를 당선시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으나, 노 대통령은 당선 후 민주당을 탈당했고 대통령을 따르는 의원들 역시 대거 빠져나오면서 양당의 관계는 악연으로 변했다. 또한 우리당 지도부는 총선과정에서 민주당을 '퇴출해야 할 부패한 기득권 정당'이라고 몰아쳤다.
여기에 탄핵풍까지 불어 우리당은 여대야소 정국을 만들었다. 반면에 민주당은 뒷받침 호남마저 우리당에 빼앗겨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이들이 이 같은 악연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합당해야 하는 명분이 도대체 무엇일까. 원래 과반을 넘겨거나 호남 지역의 지지를 흡수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눈을 찧고 봐도 당의 정체성이나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 정체성 정비와 큰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수적·지역적 이해에 급급하는 듯한 인상만 풍긴다.
대선 이후 민주당을 버리고 창당한 우리당이 민주당과의 통합을 거론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집권정당이면 정체성은 물론 정치행위에 있어서도 대의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
▲소설 속 대부분의 남녀 주인공들은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이겨내고 그들의 사랑을 이루고야 만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주당은 우리당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 겨우 지역주의가 퇴색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 등으로 정책정당의 가능성을 보여준 시점에서 이런 정당들의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의 정당들이 각자의 색깔을 내면서 지지를 넓혀가는 것이 선진정치로 가는 길이다. 부나비처럼 이합집산하는 정당의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김지는 기획부장 bob83@dongguk.edu

동국 시문 학의 발자취

지구

이창대

씨비리앙
차갑다 지구는,
몇 차례의 전쟁과
노래의 요람 속에
무서운 피우고 탈레주는
지구는 차갑다.
마음 속에 빛과 어둠처럼
그렇게 다투는 멈추지 않고

의식이 해마냥 밝아지면
화장한 신부와 속 빈 풍선과
생각하는 형벌만이
오래오래 남는 씨비리앙
차갑다 지구는.

- 이창대 시집 <바리데기 신화>
(문학아카데미, 1990)

이십 년쯤 된 일이다. 마지막 기차와 막 버스를 모두 놓친 어느 밤, 영등포역 앞 포장마차에서 '윤후평' 씨와 소주를 마신 적이 있었다. 새벽녘에 총알택시를 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주로 좋아하는 시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빛나는 시집 <명궁>의 시인과 이제 막 단란한 신출내기 사이에서 떠어나 많은 시인의 이름들이 오고 갔다.
내가 동대 출신이란 말을 들은 그가 물었다. "이창대를 아느냐?"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제 학교 선배도 모르는 내가 딱하다는 듯이, 관심을 갖고 공부해볼만한 사람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독특한 시인이라고 했다. 우리 시의 중요한 성취라 할 수 있는 '60년대 사회집' 동인인데 그의 시가 보여주는 '존재론적 비판 정신'이나 '신념에 찬 예지(叡智)'는 가히 놀랍다고 말하던 표정이 떠오른다. 사실이다. 그의 대표작이라 불리는 '기이한 초연(招宴)'과 '무서운 유희'만 보아도 그가 정말 제멋대로 기이하고 무서운 시를 쓰다가 간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앞의 시는 우리들을 '주인은 보이지도 않고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로 못 박고, 뒤의 시는 우리에게 삶 '사해(死海)속에 뗏다 사라 지기를 반복하는 공포의 놀이'로 설명한다.
이창대(李昌大; 1930-1989)는 흔한 시인이 아니다. 그의 시엔 피부와 와 닿는 느낌이 있다. 이를테면, 여기 옮겨놓은 시 '지구'는 서늘하다.
윤제림
시인·서예예술대 교수

2005년도 명사초청 특강

올바른 대학생의 성문화

초청강사 : 구구성애

(사단법인 푸른 아우성 센터 대표)

☞ 동국대 남·여 학생 모두를 초대합니다.

주 최 : 여학생실·학생상담센터
일 시 : 2005년 5월 31일(화) 15:00 ~ 17:30
장 소 : 분관 중강당
신청접수 : 5월16일(월) ~ 여학생실, 학생상담센터

※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여학생실(2260-3056, 3058)로 문의 바랍니다.

여학생실·학생상담센터

국내 대학 최대규모의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건학 99주년 기념 제9회 동국 Rock Festival 2005 "WISH YOU ARE HERE"

일 시 : 2005년 5월 25일 (수)
장 소 : 동국대학교 대운동장

◆ 참가밴드 ◆

학내 8팀 / Guest 10팀
(메인게스트 : 신해철과 N.E.X.T.)

◆ 무대규모 ◆

음향 40Kw, 조명 200Kw, 무빙라이트 20대, 스크린 2대
무대면적 50평, 발전차 2대,
객석 총 5천석(좌석 3000석 및 2000명 규모의 플로어)

제작실무 : 락동아리 피어리스 팀
주 관 : 동국 락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주 최 : 동국대학교

기획도서 특별할인 행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KG북 플러스(고견 출판유통)의 기획도서를 다음과 같이 특별할인 값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행사기간 : 2005. 5. 9 ~ 5. 20 (2주간)
2. 행사장소 : 상록원 앞
3. 할인도서 :
 - 1) 외국서적 : 원서(인문사회 중심)
 - 2) 국내도서
4. 할인율
 - 1) KG북 외국서적 : 50% 할인
 - 2) KG북 국내도서 : 20 ~ 70% 할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주의 학술 키워드

불교

'이주의 학술 키워드'는 21세기 학...

1700여년 간 우리 문화와 함께 ...

고구려가 가장 먼저 받아들여

삼국 가운데 고구려는 가장 빨리 불교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국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이는 중국 삼론종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승랑이나, 일본의 호류사의 금당벽화를 그린 담징 등의 활약상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백제는 침류왕1년(서기 384년)에 동진의 마라난타에 의해 불교가 전해졌고 무왕 때 익산의 미륵사라는 거대한 규모의 절을 통해 백제 불교 또한 크게 융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경우 법흥왕 15년(서기 528년)에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는 본격적으로 전래되어 전승할 때 이르러서는 국교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

라의 불교문화예술은 건축, 공예, 회화, 문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꽃을 활짝 피웠다.

통일신라말기가 되자 도의 등 당나라에 유학한 스님들에 의해 선불교(禪佛敎)가 소개됐다.

여러 종파 성립된 고려시대

고려의 왕건 때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으며, 현존하는 사료에도 '조계종(曹溪宗)'을 비롯한 많은 불교 종파 이름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조계종은 신라 말의 '9산 선문'이 형성되면서 하나의 종파로 성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시 지논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의천과는 달리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했다.

이 후 삼국유사로 유명한 일연이 나와 고려

의 불교계를 이끌었으며 고려말기에는 경한, 보우, 해근 등이 나와 선종을 더욱 중흥시켰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조선에 이르러 불교는 억불이라는 큰 시련을 당하게 되었고 당시 모든 종파는 선종과 교종으로 통합됐다.

일제시대에는 '조선불교선교양종'이라 불리던 종단의 이름을 1941년에 '조선불교조계종'이라 이름 하였다.

하지만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불교의 전개과정은 그리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조준호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불교는 우리 학교의 '뿌리' 교육이념 · 교양수업 · 팔정도 등 불교정신 기반해

모름지기 '관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람 등 둘 이상이 서로 걸리는 일, 즉 어떤 것이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일컫는다.

우리학교는 1906년 5월 8일 이 땅에 태어났다. 당시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로 구성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사회를 정도화 하고 중생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토지와 건설 자금을 지원받아 설립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 종립'이 됐으며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문과 교육을 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다.

불교는 일종의 철학이나 사상만이 아니라 종교이다. 종조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인 교리를 익히고, 실천하는 사람을 불교신行者, 즉 불교인이라 한다.

우리학교의 건학 이념은 '불교 정신을 바탕

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 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총망라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사회를 구현한다'이다.

인성 교육이 점점 증시되가는 한국의 현대 사회에서 우리학교의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은 자아를 깨달아 자력 갱생할 수 있는 인성을 형성시켜 주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 중 하나이다.

즉, 학생들의 심성을 개발하는 교육을 통해 더불어 사는 인생과 생각하는 철학관, 생명을 사랑하고 우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자유와 평화를 구가하는 참된 인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 목적은 '건학 이념에 따라 학술의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 · 교수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 사회의 이상 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즉, 건학 이념에 의한 교육목적의 실현은 불교 신행의 실천과 교리의 습득, 그리고 불교학의 이론과 학술적 응용으로 학문을 연구한다면 우리학교만이 할 수 있는 세계적인 학술성

과가 나올 것이며, 건학 이념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승불교의 보살 정신으로 학생을 교육하고 사회 봉사를 할 수 있다면 교육 성과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주목받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듯 불교정신을 기본으로 우리학교는 '불교대학'을 모태로 해 현재의 종합대학 모습까지 한 세기를 성장해왔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우리학교 재학생들은 기초적인 불교관련 교양과목을 통해 기본적인 '예(禮)'로서 불교이념을 익힌다.

우리학교는 이처럼 불교정신에 입각한 건학 이념과 교육목적과 가지고 이제 곧 건학 100주년을 맞이한다.

최한 객원기자(경찰학 석사과정) choikwan@dongguk.edu

생활 속에 스며든 불교

자비(慈悲)를 덕목으로 내세우는 불교는 다른 종교나 사상 등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다.

산신각의 주인공은 산과 사람을 보호한다는 산신령이고 칠성각의 주인공은 김홍화복을 준다는 복두칠성으로 모두 우리 조상들의 숭배대상이다.

지명과 산 이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서울은 서라벌에서 유래하는데 서라벌은 원래 불교 경전에서 나타나는 실라벌(室羅筏)의 음역에서 왔고 안양시의 안양(安養)은 극락을 의미하는 불교의 말이고 금강산이나 무등산 등의 대부분의 산이름이 들어서면서서 불교의 중요 용어들이 채택되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또한 현재 장려되고 있는 '화장(火葬)'은 인도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던 장례법이었는데 2600년 전의 붓다의 유훈이 다비(荼毘:성자가 수행자의 화장을 말함)된 이후로 불제자의 스님들의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 차례로 소개되었다.



Section titled '내가 읽은 책 이야기' featuring '적대적 공범자들' by 김선철. Includes a photo of the author and a book cover image.

Section titled '중앙도서관 신작도서' featuring '우리의 행복한 시간' by 공지영, '소설가 공지영의 7년만의 장편소설' by 공지영, and '내 손으로 길러먹는 새싹 채소' by 윤덕기.

Section titled '블루오션 전략' by W. Chan Kim & Renee Mauborgne, '유쾌하게 읽는 불교' by 고명석, and '적대적 공범자들' by 김선철.

청와대 시민사회비서실 행정관 김용(불교 89졸) 동문을 만나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해야 할 것”

누구나 한평생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 사회 상황에 대해 환란하고 불만을 갖기 마련이다. 반면 적극적으로 이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당시 혼란한 사회 상황에 대한 고민을 종교적인 시각에서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불교학과를 선택하고, 이후에도 정치학 그리고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감증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다. 우리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청와대 시민사회비서실 행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 동문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했다는 그의 사회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현재 활동 중인 시민사회비서실에서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

고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조금은 해소할 수 있어 뿌듯할 때가 많다는 김 동문.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직책이 안겨주는 이미지와는 달리 따뜻한 미소와 말투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고민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진짜’ 시민의 대변인을 만나 현재 맡고 있는 시민사회비서실에 대한 활동 내용과 학교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시민사회비서실은 어떠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 참여정부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공권력을 옹호, 남용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방향을 살려 이를 책임지고 맡아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발로 뛰면서 수집하고 그들의 의견에 대해 해결책까지도 함께 모색해 보는 것이 현재 시민사회비서실에서 맡고 있는 부분이다.

점차 시민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시민의 힘이 강화되고 인권, 환경, 교육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역시도 국가의 정책이나 행정을 결정하고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대화 파트너로 생각하고 이들이 발표하는 성명서나 집회 등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고 보고해,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 불교학과를 졸업한 후 청와대 행정관에 재직 중

이라는 점이 독특하게 느껴지는데.

=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군사정권 시대에 강한 자는 더욱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사회구조를 종교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학교 불교학과를 지원하게 됐다. 학과 공부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혼란스럽게 느껴지던 부분에 대해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조금씩 깨우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사회의 현상을 더욱 심도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보다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독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학 시절에 야학이나 인도철학과 관련한 동아리, 외부 단체의 강 등의 등에도 참여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에 대한 고민을 정치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연구해 보고 싶은 생각에서 복수 전공으로 정치학을 선택했으며 대학원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다. 이러한 다양한 학문에 대한 지식이 지금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 무엇보다도 대학의 중요한 역할은 그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우는 이



김정은 기자 bob83@dongguk.edu

러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에 우리 시민사회행정비서실의 기획으로 서원대학교에서는 그 지역의 문제를 강자로 개설해 직접 문제의 중심에 있는 시민들을 배심원으로 초청하고 토론하는 강좌를 성공리에 진행했다. 이로써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좌를 실시했으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우리학교 역시도 100년의 역사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연합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역할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과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기자 bob83@dongguk.edu

인물동정

4·19 혁명 동지회 회장에

김재진 동문 선출돼



우리학교 김재진 동문(경제 63졸)이 지난달 27일 '동국대학교 4·19혁명 동지회' 제3대 회장에 선임됐다. 4·19혁명 동지회는 4·19혁명 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과 자유, 민주, 정의를 기리기 위해 99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김재진 동문은 한국도로공사 업무본부장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지도위원을 맡고 있다. 이번 취임과 관련해 김 동문은 "4·19혁명정신을 정립하여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연형 동문 '판소리 소리책 연구'

판소리 학회 학술상 수상



우리학교 배연형(국문 79졸)동문이 판소리 학회에서 '제4회 판소리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한 논문은 '판소리 소리책 연구'이며 유성기음반 문헌과 서지문헌을 결합시킨 내용이다. 한편, 배 동문은 현재 우리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를 맡고 있으며 KBS 1FM 국악의 향연 진행자로 활동 중에 있다.

이순영 동문 동해대 총장에 선임



우리학교 이순영 동문(경영 79졸)이 지난달 12일 동해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됐다. 이 동문은 서울시교육위원, 세계 사격연맹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선거관리위원회 부회장, 한세 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동문은 지난 20일에 열린 취임식에서 "주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빠른 시일 내 학교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기 동문 현대 모비스 부회장에



우리학교 이상기(경제 78졸) 동문이 지난 달 29일 현대모비스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상기 동문은 현대자동차 서비스에 입사하여 현대 캐피탈 사장, 현대 하이스코와 현대차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격화되는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부품산업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 독서 통해 깨우쳐”

동국건축 100주년을 함께 하는 사람들

I 이관제 100주년 기념사업 본부장



우리학교의 건축 100주년을 앞두고 그 누구보다도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건축 100주년 기념사업회의 실무를 맡고 있는 이관제 본부장이 바로 그들이다. 묵묵히 뒤에서 학교의 100년이라는 역사를 빛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100주년 기념사업회의 이관제 본부장을 만나 현재 기획하고 있는 사업과 주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현재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기획 중인 사업은.
= 먼저 우리 부서에서는 최대한 어느 한 사업에 치우치지 않고 각각의 사업에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다. 먼저 건축이념 구현의 일환으로 건축 100주년 기념법회와 건축에 기여한 사찰 답사, 전시회, 불꽃 축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우리학교의 역사 정립 분야로 학교의 학술문화사, 사진, 자료집 등을 수집하는 '동대 백년사편찬간행'과 '타임캡슐 봉안 및 기념비 제작'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대학의 기념사업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학술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와 불교생태학'과 'DMZ 생태평화 문제제명' 등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할 예정이며, 우리말 불교 개념사전, 한국 불교 서사문학대계, 한국 불교사기문학대계 등의 편찬을 통해 우리학교의 불교와 관련한 학술적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할 생각이다.

또한 건립 분야의 경우 일산불교 병원의 개원 준비, 서울캠퍼스 정문 진입로 직선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행사 분야에서는 산악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박영석 동문 북극점후원사업, 건축 100주년 기념식, 동국백년문화축전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발히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생각이다.

- 100주년 사업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응에 대해.
= 현재의 상황에서 전체 주체들의 참여와 화합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아직 100주년의 분위기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교수, 학생, 동문 등 학교의 전체 구성원들이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준다면 우리 100주년 기념사업회 역시 우리학교 건축 100주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우리 100주년 기념사업본부와 동대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건축100주년 기념사업 공모'에 학교 전체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 이를 통해 모인 주체들의 의견이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의 100주년 사업은 우리 본부만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학교 전 구성원들의 행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주체들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100주년 사업에 대해 자발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며, 주관해 나갈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정은 기자 bob83@dongguk.edu

졸업앨범 촬영일정표. Table with columns for date, time, location, and staff. Includes dates from May 9 to May 24.

2005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안내. Includes sections for 1. 수업 일정, 2. 일반강좌 개설, 3. 강좌개설 기준, 4. 수강신청, 5. 성적 처리, 6. 수강신청, 7. 수강료, 8. 수강신청 취소, 9. 수강료 납부, 10. 개설대상 교과목. Includes a table for exam dates and times.

민족의 '일' 담아내는 '신명'의 자리

새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 개월에 한 번씩 나오고 어제 산 핸드폰이 '구형'이 돼버리는 요즘, 우리는 '새 것'에 목말라 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 '오래된 것'은 잊혀지고 무시당하기 일쑤다. '바로 어제'의 것'도 외면받는데 '아주 오래된 것'은 어떠하랴. 이처럼 새 것에만 익숙해진 요즘 세대에게 오래됐지만 우리의 정신과 문화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지난 6일부터 3일간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제1회 서울무형문화재축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행사였다.

소중한 우리문화 한 자리에

'전통문화를 배우고(Learn), 즐기고(Enjoy), 체험하자(Try)'는 뜻의 'LET's G'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악, 사물놀이, 굿 등 우리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들이 처음으로 함께 열린 자리였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평소 가까이 할 수 없던 각종 무형문화재들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었으며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행사는 △6일=개막식(대취타, 종묘제례악, 대금, 판소리, 신명놀이 등), 판소리, 전통혼례시연, 마들농요, 처용무, 승무, 밤섬부군당도당굿(독도수호의 굿) △7일=중중다례의식, 서도소리, 봉산탈춤, 남이장군사당제(서울시민화합의 굿), 봉화산도당굿(우리 경제회생 굿) △8일=휘몰이



잡가, 강령탈춤, 남사당놀이, 줄타기, 폐막식(살풀이, 어버이날 특별공연 등)으로 이뤄졌다. 이 밖에도 전통놀이체험, 떡 메치기, 새끼 꼬기 등이 부대행사로 치러졌다.

이처럼 '우리 것'의 향기가 베어나는 넓은 남산골 한옥마을 곳곳에 흥겨운 우리가락이 울려 퍼지자 시민들도 즐거워했다. 한 모임에서 단체관람 온 강순자(49)씨는 "이전에는 닫힌 공간에서 다소 비싼 관람료를 내야만 볼 수 있던 것들인데 이번 행사를 통해 열린 공간에서 무료로 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가 많이 공연됐다. 먼저 '종묘제례악'의 경우 무형문화재 제1호이자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약'으로 지정돼있으며, '대취타' 또한 무형문화재 제46호이다. 개막식날 대금연주를 한 이생강씨는 3대째 우리나라 대금산조의 맥을 잇는 인간문화재로 지정돼있기도 하다.

이렇듯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보니 관련 전공을 하는 대학생들도 많이 찾았다. 굿을 공연하는 자리에서 만난 한양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은주씨는 "수업관련 숙제가 있어 이 곳을 찾았다"며 "굿을 보는 것이 처음인데 신기하고 새롭다"고 말했다.

우리 '마당'부터 지켜야 할 때

그러나 아쉬운 점도 눈에 띈다. 먼저 넓은 장소 곳곳에서 공연이 열려 어수선한 분위기를 자아냈



을 뿐만 아니라 행사 첫 날은 우천으로 인해 관람객이 많지 않아 분위기가 많이 침체된 모습이었다.

또한 일부 공연 시작은 예정보다 30분 이상 지연됨으로써 관람객들이 불만을 자아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다리다가 공연이 지연돼 자리를 떠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또한 많은 공연들이 다소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것은 보완해야 할 점이다. 평소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이번에도 공연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는 김주태(45) 씨는 "예전에 지방에서 비슷한 공연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번 공연들은 그에 비해 많이 형식적인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탈춤, 사물놀이, 굿, 판소리 등 우리 전통문화가 서양음악, 가요, 공연 등에 밀려 점차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요즘의 모습은 매우 안타깝다. 대학 안에서도 곳곳이 우리의 '마당'을 지키려는 동아리들이 있지만 함께하는 학생들이 적어지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다. '새 것'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조금만 시야를 돌려 전통문화의 계승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우리 것'을 찾아보는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작품 속 인물에 인물

소통의 다짐과 인간애

철없는 엄마를 밤새도록 기다리는 철든 딸 엘자. 사막 한 가운데 손님 없는 카페 주인 브렌다. 이들은 각각 다른 영화 속 주인공이지만 공통점을 갖는다.

외로움. 두 영화에서 그것은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기보다 치유 받아야 할 감기 같은 것이다. 그런 그들 앞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주목해보자.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작품 '버터플라이'에서 나이든 할아버지 줄리앙은 엄마의 사랑에 목말라하는 이웃집 꼬마 엘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두 사람은 나비를 찾으러 떠나는 길에 동행하면서 서로에게 더는 못할 따뜻한 추억과 우정을 선사한다.

"애 사람은 울라간다고 하지 않고 빠진다고 하죠?" 어린 엘자의 천진한 물음은 이 세상 도처에 숨쉬고 있을 사람의 본질이 가지는 이중성에 의문을 던진다. 줄리앙은 그런 엘자를 동정하지만 내색하지 않는다. 나이를 초월한 그들의 여행은 경찰에 유괴 사건으로 접수되지만 엘자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동안에 줄리앙은 지난날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다. 짧았지만 함께 나누었던 그들 사이에 따뜻한 기류는 불모지에 피어나는 우아한 장미처럼 사람만이 가꿀 수 있는 삶의 희망이 되어 영화의 잔상으로 남는다.

지루한 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모텔 '바그다드 카페'에서 나른한 일상을 보내는 중년의 여자 브렌다.

신경질적이고 사나운 그녀에게 어느 날 손님으로 찾아온 자스민은 바로 그 웃음의 불모지에 천연색을 입힌다. 자스민은 커피가 다 떨어진 무료한 이곳 카페에서 신기한 마술쇼를 펼친다. 바그다드 카페에는 어느새



손님이 바글바글 모여들고 활기를 찾아간다. 그녀의 칭찬과 존중은 바그다드 카페의 스테프와 손님들에게 새로운 삶의 행복이며 희망으로 자리매김 된다. 물론 매일 하품을 하며 따분하게 한쪽 구석을 지키던 사막 카페의 히스테리컬한 여주인도 웃음과 눈물을 되찾는다.

자스민은 브렌다와 동네사람들에게 동반자로 다가가면서 영화의 카타르시스 같은 존재로 그려진다. 사막에 풀 한포기 자라지 못하는 이유와 닮아 있는 척박한 인간사에서 그녀는 발을 일궈 꽃을 가꾸듯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생각보다 그리 넓지도 다양하지도 못하다. 비슷하게 반복되고 한정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앞 다투어 벌어지는 사건과 감정의 충돌을 수습하며 치유하기란 그리 복잡한 과정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공통된 원인이 있다. 이해하려는 관심, 다가서려는 의지의 부재. 그것이 다른 이름의 변명으로 늘 핑계 되어지는 것뿐이다. 줄리앙이나 자스민이 알고 있는 삶의 방식을 우리들 스스로가 외면하지 않는다면, 그 변화가 이제 시작이다.

김윤경 객원기자(영화전공 석사과정)
agikongyong@hanmail.net



문화캠페인

동국인! 문화인!

코끼리를 위한 선물!

슬그머니 놓고 간 어느 동국인의 양심을 코끼리상반이 바라보고 있다.

장소=필정도 코끼리상 앞

사진=최민희 기자

연꽃처럼 활짝 핀 불교도들의 축제

규모 커진 알찬 행사 ... 불교대 재도약의 발판돼야

동국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르는 곳. 우리학교 캠퍼스 중앙에 위치해 평소 '야외법당'으로 평온하고 엄숙한 장소로 인식되던 팔정도에서 한바탕 '야단법석'이 일어났다.

동국대학교 불교도연합(회장=일진스님)이 주관하는 '동불연꽃제'가 지난 2일부터 3일간 팔정도 일대에서 풍성하게 열렸다. 이는 기존의 '불교도주간'이 '동불연꽃제'라는 명칭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인영(불교4) 불교대 부학생회장은 "기존의 명칭이 의미가 불확실하고 축제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해 바꾸게됐다"며 "동불연꽃제'는 불교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이며 '동국대학교 불교도연합 연꽃제'

의 줄임말이다"고 말했다.

이번 '동불연꽃제'는 예년과 달리 외부단체, 부속고등학교 등의 참여 확대,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새 프로그램 기획 등으로 풍성함을 더했다. 행사는 △2일=다과회, 야외수업, 인사체험, 점등식 △3일=1080배, 정각원 법회, 저녁예불, 만해관 차보시 △4일=성불도 놀이, 요가실수, 대동제, 타로카드 점 등으로 진행됐다. 이 중 '인사체험'은 죽음을 맞는 상황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행사의 수익금 중 일부를 지난 식목일 화재로 소실된 낙산사 돌기 모퉁에 사용한 점 등은 불교대 행사의 의미를 잘 살리는

것이였다.

매시간 팔정도 중앙에서 행사가 진행됨으로써 축제분위기를 잘 살린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임원철(식품생명3) 생자대 학생회장은 "행사 규모도 크고 타 단과대 학생들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잘 꾸려져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막식 등의 행사가 수업, 학내 각



종 주요회의 등 여타 상황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돼 '불교도만의 축제'로 인지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학교 중앙인 팔정도에서 열리는 만큼 학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했다는 반응이다. 또한 몇몇 행사가 지연된 점, 예정보다 많은 인원으로 인해 일부 학생은 참여할 수 없는 행사가 발생한 점 등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올해 초 불교대의 만해관 이전, 내년 건학 100주년 등은 최근 침체된 불교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 '동불연꽃제' 또한 학내 중요 문화행사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opant@dongguk.edu